

“美 관세, 수출산업 고용부진 우려 ‘위기지역 지정’ 등 만반의 준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회의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6대 청년일자리사업 집중관리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 환경 하에 제조업 중심 수출 산업의 ‘고용 부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필요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통상리스크에 따른 산업·지역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미국의 상호·품목 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 조치로 통상 환경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TF 중심으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

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정 시 해당 지역에는 실직자 생계 부담 완화와 재취업·직업훈련 참여 기회 확대,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대책이 마련돼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관련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학부터 구직 및 재직까지 취업 단계별로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6대 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올케어플랫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K-디지털트레이닝’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다.

정부는 특히 4~5월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청년 참여율을 높이고 고용취약 청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청년이 제감할

수 있는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범부처 차원의 직접일자리 사업도 순항 중이다. 직접일자리란 공공 근로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기준 110만8000명의 채용을 기록해, 단 3개월 만에 연간 채용계획(123만9000명)의 89.4%를 달성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정부는 상반기 목표(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지난 2월 개설한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핫라인을 상시 운영 플랫폼으로 정착시키고, 오는 5월 경제6단체와 정례회의를 열어 기업의 고용 관련 건의사항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권오갑 회장과 정조 대왕급 2번함 ‘다산정약용함’을 보고 있다. /뉴시스

“美 관세정책 대응 고민중 양국 이익증진 협상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HD현대중 방문, 관계자 격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날(15일)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은 바 있어, 이를 연속 경제 현장 행보를 한 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HD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권오갑 HD현대 회장과 노진율 사장, 주원호·금석호 부사장 등을 만났다. 애초 한 권한대행의 격려 발언이 예고됐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다산정약용함 앞에 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다산정약용함의 재원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다산정약용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이르면 내달 중 진수된다.

한 권한대행은 권오갑 회장에게 “회사들이 다 이 근처에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 회장은 “30010개 정도 협력사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다 있고, 군함을 만들기 위해 250개 정도 협력사가 조립하는 방식이라 거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HD현대중공업 방문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내놓은 조선업 협력 카드

의 현장 점검 차원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에 증진하는 것”이라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라고 했다.

한편 전날 한 권한대행은 광주 기아 오토랜드를 방문했다. 이를 연속으로 영·호남을 오가며 산업 현장을 찾은 셈이다. 이 때문에 ‘대권 민심 읽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힌 적은 없다.

/서예진 기자 syj@

작년 중국향 매출 4조… 전년비 19% ↑

>> 1면 ‘JY 訪中성과…’서 계속

내수와 수출을 모두 포함한 전체 매출에서도 중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23년 전체 매출 8조 9824억원 중 중국 수출이 차지한 비중은 38.2%로 집계됐다. 이듬해에는 전체 매출 10조 2941억원 중 중국 수출 비중은 39%로 확대되며 비중이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정책 기조 속에서 중국과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이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M LCC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전장용으로 범위를 좁히면 공급 가능한 기업은 더 한정적이며서 삼성전기 제품이 시장에서 배제되긴 어렵다는 업계 내부의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삼성전기 측에서는 특정 국가나 시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정책 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고위급 발전 포럼에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샤오미 레이첼 최고경영자(CEO)와 만남을 가졌다. /웨이보 캡처

가 잦은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2025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꽃, 상상 그리고 향기

2025. 4. 25(금) ~ 5. 11(일)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